



하버마스의 과학관과 합리성

20세기는 역사적으로 혼돈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세기 초에는 과학에 대한 절대 확신과 이에 근거한 '희망의 낙관론'이 지배하는 상태였지만 그 후 줄곧 정반대의 정신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1900년 1월 1일자 뉴욕 타임스는 당시의 빛나는 업적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업적들은 계승 발전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전망은 희망에 가득 차 있다"는 요지의 사설을 실었다.

반과학주의 형태 취하는 '탈근대주의' 등장

사실 당시는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무선 통신기가 영국 군함에 설치되고 양자론의 기초를 이룬 프랑크 상수(h)가 도입되었으며 뢰트젠이 X선을 발견하고, 이어 퀴리 부처에 의해 라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과학의 힘은 근대 과학에 접하지 못했던 중국을 압도하고 결국 복청사변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후의 사태는 당초 예상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전개되었다.

양차대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전지구적 참화가 계속되었으며 핵무기의 개발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 또한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 양

분되어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계속되고 각종 재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와중에서 과학기술은 현대인의 의식에 전반적으로 침투하여 근대적 이성을 형성하고 과학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오늘날 반과학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이른바 '탈근대주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등장한 현대의 중요한 철학 사조이다.

탈근대주의 철학자들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형성된 근대 철학의 근본 개념들을 '해체'하려 한다. 보편적 이성이라는 이념, 인간이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라는 생각,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강요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역사관들이 그러한 해체의 대상이다.

가령 대표적인 탈근대주의자인 료타르는 근대문명을 규정한 거대한 담론들이 전체주의를 낳았다고 본다. 계몽주의나 헤겔 철학 혹은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인 각 시대와 각각의 지역, 그리고 다양한 담론들이나 각 개인들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자유주의적인 사회나 공산주의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근대의 서구인들이 이러한 도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글_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것으로서 억압하고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 담론들은 전체의 논리를 개체에 강요함으로써 20세기의 전체주의를 낳은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가들은 이성 대신에 감성을 내세우고 과학보다는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이성 중심의 서양 근대 문명이 자연과 인간관계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감수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홍수 속에서 과학과 근대적 이성을 과감하게 옹호하려고 한 철학자가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 “근대의 본질은 계몽주의”

하버마스에 의하면 근대 계몽주의의 기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근대적이거나 탈근대적인 출구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끊임없이 성숙해 온 계몽주의적인 이성을 발전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탈 근대주의의 이성비판 그 자체가 이성에 의한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된 계몽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하버마스는 근대의 본질을 계몽주의라고 본다. 계몽주의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몽매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자신의 이성에 입각하여 사유하고 행위하지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성은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인식에 관한 과학적인 해석을 발전시켰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자연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칙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무비판적이고 무반성적으로 관습이나 신앙에 의거해서 판단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인간 이성은 이제 신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진행과정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며 예견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간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이성을 하버마스는 도구적 이성 혹은 ‘목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강구하는 이성적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이성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용뿐이다. 과학기술은 목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으며, 그 실현을 위한 수

단을 개발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이 전부 는 아니다. 그에 의하면 근대에는 또 다른 이성, 즉 소통 합리성이 발전되어있다고 한다. 이 합리성은 자연과 인간을 관찰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자율적이고 더 나은 가치를 찾는 인격으로 대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상황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이다.

‘소통적 합리성’의 성과

그는 ‘기술과 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에서 “기술공학 진보의 예기치 못한 사회문화적 귀결을 통해 인류는 자신이 사회적인 운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기술 공학의 도전은 기술 공학만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기술적인 지식과 능력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인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실천적인 지식 및 의지의 한정되고 통제된 관계로 물고 가는 정치적으로 유효한 토의를 발동시키는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토의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무엇이 가능한지에 관해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지식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발한 것인지 실천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소통적 합리성이 그동안 명맥을 이으며 성숙해 왔으며, 실제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든지 고문을 폐지하는 등 인도주의적 성과를 거두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적 이성을 포기하고 이것을 탈 근대적 감수성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어린애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성에는 도구적 혹은 체계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음미하고 반성하며 비판하는 전혀 다른 기능이 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기능을 의사소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준을 소통적 합리성으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앙이나 철학적 사변 혹은 예술적 감수성 같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㉔